

브렉시트 우려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

□ 영국의 EU 탈퇴(Brexit) 찬반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일(6.23, 현지 시간을 앞두고 탈퇴 가능성이 점차 상승

- Financial Times(6.13일)는 여론조사(FT's Brexit poll)결과 브렉시트 찬성 비율이 45%(반대 43%)였으며 6월 10일 이후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은 조사결과가 많아지고 있다고 발표

□ Bloomberg(6.14일)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

- (24시간)

- EU 고위직은 국민투표 당일 심야회동을 통해 그리스 부채문제 재발 가능성, 파운드화 가치 변동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 상황을 중점적으로 체크할 것으로 예상
- 독일과 프랑스는 EU동맹체제 강화를 위해 공조할 것임

- (일주일)

- 6.25일 영국을 제외한 EU국가 정상들은 긴급통화(emergency call)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EU탈퇴 여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
 - * 네덜란드, 덴마크, 헝가리 등에서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EU체제에 대한 반정서가 형성되어 있음
- 영국 총리(Cameron)는 영국이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와 같이 EU경제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지 또는 WTO 무역체제를 선택할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

- (100일)

- 다른 국가에서 EU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요구가 커지면서 EU의 난민수용, 그리스 금융지원 등의 정책방향이 전환될 수 있음
- 영국 및 EU는 금융기관들의 본사이전, 어업협정, 보건 및 안전규제 등을 논의

□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여타 EU국가, 특히 유로화 사용 국가의 EU탈퇴 가능성 및 유로화 붕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은 상당기간 불안할 것으로 예상

- 최근 브렉시트 찬성비율이 높은 여론조사결과 발표(6.10일)이후 유로화 가치(6.14기준)는 미달러 및 일본엔화에 대해 1~2.5% 절하

* 달러/유로(\$/€) : 1.1316(6.9일) → 1.1251(6.10일) → 1.1292(6.13일) → 1.1207(6.14일)

* 엔/유로(¥/€) : 121.9(6.9일) → 120.4(6.10일) → 120.0(6.13일) → 118.9(6.14일)

- 달러화로 표시되는 유가(브렌트유 기준)는 동기간 4% 넘게 하락
- 미국 및 유럽의 주가도 동기간 1.7~6.4% 하락
- 한편 대표적 안전자산인 선진국 국채, 엔화, 금의 가격은 상승

주요 자산가치 변동

자 산		변동폭	6.9일	6.14일
환율	엔화(¥/€)	2.5% 절상	121.9	118.9
	달러화(\$/€)	0.5% 절상	1.1316	1.1261
채권	미국 국채(10년물)	-0.4%p	1.6867	1.5886
수익률 (%)	일본 국채(10년물)	-0.04%p	-0.125	-0.164
	독일 국채(10년물)	-0.04%p	0.033	-0.004
상품 (\$)	금(Comex 8월물)	2.1%	1,262	1,289
	원유(Brent 8월물)	-4.1%	51.95	49.83

자료 : Bloomberg

□ 국내금융시장도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임

- 주식시장은 유럽계자금 이탈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6.10~14일 중 52p 하락
- 원화환율은 미달러당 1,156원(6.9일)에서 1,173원(6.14일)으로 1.5% 절하
-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1.661%(6.9일)에서 1.634%(6.14일)로 하락

담당 : 백충기 수석연구위원
김민준 책임연구원
Tel. 051)620-3191